



문장부호

난주 글·그림 / 고래벡속

작은 씨앗이 툭 떨어졌어요.
씨앗이 쪽쪽 뿌리를 내리더니,
어느덧 초록빛 싹이 쭉 고개를 내밀었어요(!)
작은 봉오리가 천천히 꽃잎을 벌리면 꽃향기가 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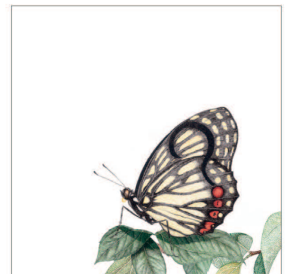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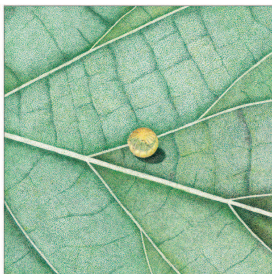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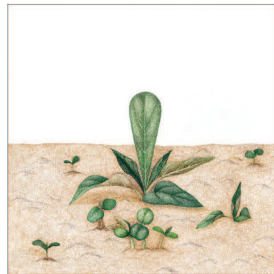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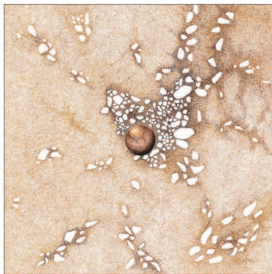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보랏빛 제비꽃이 얼굴을 내밀니다. 제비꽃은 키가 작아 쪼그려 앉아야만 자세히 볼 수 있지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바라보면, 꽃밭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문장부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글동글 마침표를 닮은 씨앗, 침표를 닮은 애벌레, 느낌표를 닮은 번데기, 꽃자루 끝이 굽어 꼭 물음표를 닮은 제비꽃... 제비꽃 씨앗이 떨어져 꽃파고 열매를 맺는 순간들을 섬세한 점묘화로 숨죽여 관찰하면서, 꽃밭 구석구석 숨어 있는 문장부호를 찾아보아요.

제비꽃은 봄날 벌이 잘 드는 여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길 옆이나 풀밭, 갈라진 시멘트 틈이나 돌담 틈 등 제비꽃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리도 없는 씨앗이 어떻게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걸까요?

제비꽃은 씨앗을 멀리 퍼뜨리기 위해 개미의 힘을 빌립니다. 제비꽃이 개미가 좋아하는 하얀 알갱이를 씨앗에 붙여 놓으면, 개미들이 씨앗을 제 집으로 조심조심 옮기지요. 개미들이 하얀 알갱이만 쏙 떼먹고 씨앗을 버리면 그 자리마다 새싹이 움트고 새로운 제비꽃이 피어납니다. 제비꽃은 개미에게 영양분을 주고 개미는 제비꽃의 꽃을 새롭게 피워 주는 것이죠.

이 책은 이처럼 제비꽃과 개미가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 『문장부호』를 읽으면서 숨어 있는 문장부호를 찾아보았나요? 다음 그림에서 문장부호를 찾아 ○표 해 보세요.



2 『문장부호』는 점을 찍어서 색칠을 하는 점묘화예요. 여러분도 점묘로 색칠을 해 보세요.



3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를 보고 떠오른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그리고 그림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써 보세요.

.	,	!	?